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송부문 녹색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윤제웅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코로나19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외 시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어 향후 우리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에 최근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그린뉴딜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성장에 대한 위기로 논의되었던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뉴딜의 여러 대상 부문 중에서도 수송부문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이슈에 따른 피해가 크고, 에너지와 발전, 산업 등 타 부문 녹색전환과 연계성이 높아 그린뉴딜의 추진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속에서 수송시스템의 녹색전환은 미래 수송부문 변화의 핵심이다.

“그린뉴딜의 여러 대상 부문 중에서도 수송부문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이슈에 따른 피해가 크고, 에너지와 발전, 산업 등 타 부문 녹색전환과 연계성이 높아 그린뉴딜의 추진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이다.”

수송부문의 녹색전환

우리 사회에 다가올 수송부문의 큰 변화는 자율이동성과 물류 연결망을 통한 수송시스템의 전환이다. 이는 내연기관차량에서 녹색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으로의 전환, 자율주행시스템 도입, 차량 공유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물류운송부문에서는 충전소와 물류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에 센서가 내장되어 물류흐름 데이터를 획득·분석하여, 물류공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 공유를 최적화하여 물류 상품의 보관 및 운송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무인 전기 및 연료전지 운송체계는 스마트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화물 선적 노동의 한계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운송에 있어서도 차량의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이동성을 제공하며, 현재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은 높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원소비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따른 환경적인 혜택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송부문의 그린뉴딜

수송시스템의 녹색전환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세계적인 변화를 맞이한다면 기존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며, 기존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스템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린뉴딜을 통하여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물적·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수송부문의 그린뉴딜은 우선적으로 녹색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 및 연료전기 차량으로의 전환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량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과 충전소 등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 친환경차 보급 등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정책과 더불어 교통수단이 이용하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 등도 그린뉴딜의 추진전략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원의 생산 단계부터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래 지속가능 발전을 대비하고 수송수단의 에너지 집약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기술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센서, 자율주행 등 융합기술이 자율이동성과 물류 연결망 구축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 역시 그린뉴딜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송수단의 총량 및 에너지 집약도를 줄이기 위한 공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녹색전환은 우리에게 높은 효율과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반면에 승용차와 트럭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운송 및 물류 부문의 기존산업에도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역시 그린뉴딜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얼마 전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총선은 우리 국민의 높은 위기관리와 민주주의 역량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을 모아 수송부문의 그린뉴딜이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하면서 환경 현안 해결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